

●일일스터디_표준안

윤선민 / 중앙일보 / 2026.06.08.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투표용지 부족' 항의 집회 닷새째...올림픽공원 입주사도 발 묶여	사회	-
2	더 늘어난 '용지 부족' 투표소...50% 미만도 최소 2곳	정치	-

(1)기사/뉴스요약

'투표용지 부족' 항의 집회 닷새째...올림픽공원 입주사도 발 묶여

[앵커]

서울 잠실 개표소에선 참정권 훼손에 항의하고 재선거를 요구하는 집회가 오늘(9일)도 이어졌습니다. 부정선거나 수개표 주장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로 닷새째,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기 위해 잠실 개표소 앞으로 모인 참가자들, 지난 주말 최대 3만 명까지 늘었던 인원은 오늘 수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경찰 비공식 추산 오전 7시엔 2백 명 수준으로 감소했다가, 11시 반 380명, 오후 들어선 수천 명으로 다시 서서히 증가했습니다.

재선거 요구가 중심이었던 주말 집회와 달리,

오늘은 부정선거에 이어, 당일투표와 수개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참가자 간 충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진보 단체 소속으로 의심받은 여성이 쫓겨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도시락 먹고 있는데 대진연이라고 쫓아냈어요."]

어제(8일) 중국인으로 오인돼 시비에 휘말렸던 대만 기자들은 국기를 들고 취재에 나서야 했습니다.

출입 통제가 이어지면서 경기장 입주사 직원들의 출퇴근도 막힌 상황.

늦은 오후 직원 18명이 사무용품을 챙기기 위해 경기장을 찾았지만, 참가자들이 신분 확인을 요구하면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떤 곳인데! 저걸 열어달라고!"]

주최 측 없는 시민들의 자발적 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은 현장 경비를 이어가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핵심: 서울 잠실 개표소에선 참정권 훼손에 항의하고 재선거를 요구하는 집회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다.

(2)기사/뉴스요약

더 늘어난 '용지 부족' 투표소...50% 미만도 최소 2곳

[앵커]

선관위가 부실 선거 이후 사후 대처까지 부실하게 하며,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투표지가 부족했던 투표소가 아흔 한 곳으로, 또다시 늘어났습니다.

또 투표소 중 최소 두 곳에선 선거인 수의 50%란 지침보다도 투표지를 적게 준비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여소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투표를 마쳤어야 하는 저녁 6시가 넘었지만 투표소엔 여전히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기표를 해야 할 용지가 모자라 대기 중인 유권자들입니다.

이처럼 초유의 투표지 부족 사태가 일어났던 투표소, 선관위는 어젯밤(8일) 전국 91곳이라고 새로 발표했습니다.

지난 5일 전국 50곳이라더니, 사흘 만에 41곳, 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투표지가 부족해 짧게는 4~5분에서 길게는 100분 이상 투표가 중단됐던 투표소 숫자도, 당일 14곳에서, 5일엔 22곳으로, 어젯밤엔 26곳으로 발표 때마다 늘고 있습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이유, 인쇄 수량 하한 지침을 '선거인 수의 50%'로 낮춘 게 결정적 원인으로 꼽히는데, 이마저도 지키지 않은 투표소가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송파구 투표소 한 곳과 강남구 투표소 한 곳은 준비했던 투표용지, 선거인 수의 43~45%에 불과했습니다.

300~400장 정도가 부족했던 겁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미리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투표용지 인쇄량을 정하는 건 지난해 말 등록 선거인 수가 기준인데, 실제 선거는 6개월 뒤 치러지다 보니 그사이 변한 인구수를 반영 못 했던 게 선관위 설명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 숫자와 실제 선거인 수 비교를 미처 못한 것 같으며, 세심하게 못 보고 놓친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핵심: 투표지가 부족했던 투표소가 아흔 한 곳으로, 또다시 늘어났다.

●일일키워드

순번	키워드	설명	출처
1	칩렛	반도체 칩을 기능별로 여러 개의 작은 칩으로 나눠 설계한 뒤 이를 완성된 시스템으로 조립해 동작하게 하는 방식을 말한다.	매일경제
2	소버 큐리어스	술에 취하지 않는다는 소비와 궁금함을 의미하는 큐리어스를 합친 표현이다.	매일경제